

經濟소프트화와 産業發展

房 錫 炫*

| | |
|---|---|
| 〈차 례〉 | |
| I. 情報社會와 經濟소프트화 II. 經濟소프트화에 따른 産業環境變化 1. 埋沒費用(Sunk Cost)의 회피 2. 엔高現象 3. 先進國의 自國市場保護와 市場開放壓力 4. 원高現象 5. 雇傭構造의 急速한 變化와 農村問題 | III. 韓國의 産業전략 1. 埋沒費用(Sunk Cost)과 資本投資 2. 中間財産業의 吸收 3. 生産自動化와 情報通信技術의 活用 4. 國內市場의 擴大 5. 農業의 工業化 IV. 結 論 |

〈요 약〉

〈現代社會는 情報化라는 커다란 흐름속에 있으며, 情報化의 進展에 따라 나타나는 經濟現象의 가장 큰 변화는 소프트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情報社會에서 나타나는 特徵的 현상을 분석 내지 예견하여 産業發展이 급변하는 현사회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가 주요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情報社會化에 따라 經濟가 소프트化되는 현상을 産業構造·雇傭構造의 變化와 産業組織의 變化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經濟의 소프트化에 따른 國內外的인 産業環境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가를 考察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産業政策의 方向을 設定하는데 직접적으로 考慮해야 할 변수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構造의 産業環境 속에서 우리의 對應으로서 産業戰略의 方向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를 끝으로 政策方向으로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高度産業社會로의 移轉은 우리에게 주어진 必然的 課題이다. 이를 위해 경제환경의 올바른 분석과 그에 따른 적절한 産業戰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支援의 側面에서 教育훈련을 통한 人間開發과 創造的 經濟분위기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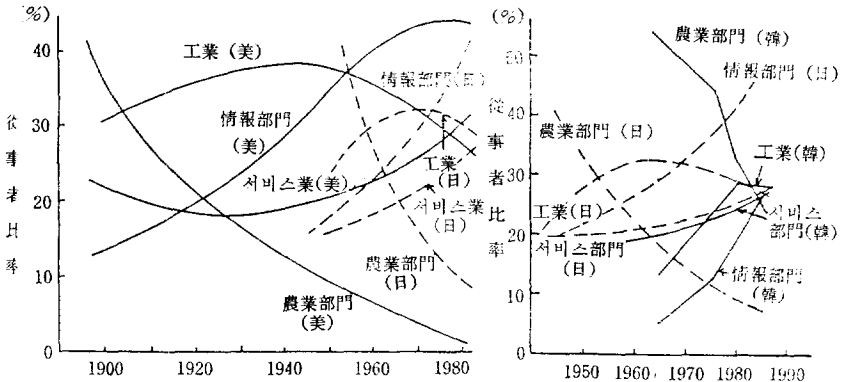
* 서울大 行政大學院 副教授

I. 情報社會와 經濟소프트화

高度産業社會를 위한 능률제고의 과정에서 비약적인 情報技術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情報技術을 고도로 이용함으로써 현대사회는 이른바 情報社會에로의 변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産業發展의 양상도 변하고 있으며 情報社會와 産業發展의 관계정립의 필요성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진국들에서 情報化에 따라 變化하는 경제의 흐름을 把握하여 이에 따른 構造的 産業環境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산업의 對應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情報化의 진전에 따른 경제적 임팩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經濟소프트화라 할 수 있다. 즉, 情報化의 진전에 따라 消費者의 個性化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첫째, 附加價値의 대부분이 편중된 情報나 知識을 이용하는 서어비스화·情報化의 방향으로 産業構造가 變化하고 이에 따라 雇傭構造도 産業構造의 소프트화를 충족시키는 3次産業중심의 구조로 변화하게 되며, 둘째, 流動的 生産自動化(FMS)와 設計自動化에 의해 多品種少量生産體制를 갖추어 製品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을 단축시킴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실현하게 된다.

우선 産業構造의 변화를 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南北關係에서도 대체로 情報와 工產品間의 분업이 이루어짐으로써 先進國은 높은 부가가치의 情報·知識産業을 유지하려 하고, 開發國에서는 낮은 부가가치를 지닌 製造業 중심의 산업발전으로 성장해 지속하려 하고 있다. 이로써 情報化가 고도로 追求될수록 先進國에서는 정보·지식과 공산품간의 상대가격을 재형성하여 정보·지식에 보다 높은 상대가격을 인정하려 하고 저렴한 人件費중심의 競爭力을 기반으로 하는 開發國은 정보·지식의 상대가격을 높게 인정하기 어려워 南北交易에서의 比較價格策定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결국 상품이 生産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비중이 單純生産部分에서 높은지 아니면 市場·製品化·金融·流通·情報面에서 높은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완만한 성장하에 供給者間에 치열한 競爭을 벌임으로써 공산품



〈그림〉 韓國・日本・美國에서의 雇傭構造變化 推移¹⁾

의 생산자체에 높은 附加價値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高附加價値 편중의 産業構造化에 따라 선진국의 雇傭構造도 변화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工業部門比率의 下落과 情報 및 서어비스部門比率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韓國의 雇傭構造도 이러한 先進國의 變化方向을 걸고 있는가. 2000년대 韓國의 고용구조를 위의 美・日과 비교하여 OECD 分類方式에 의해 예기해보면 다음과 같다.²⁾ i) 農業은 급속도로 下落하여 한자리 比率로 위치하게 되며, ii) 製造業은 급속한 성장후 30%선을 정점으로 下落推移를 보이며, iii) 서어비스業部門은 완만하게 지속적 상승을 보이며, iv) 정보사회의 3진현상을 보여주는 情報部門은 급속히 상승하여 50%선에서 정점을 이룰 것이며, v) 變化사이클은 美國보다는 日本이 급속하게 變化하고 日本보다는 韓國이 더욱 급속히 變化하며, vi) 결과적으로 2000년대 한국의 고용구조는 농업부문이 한자리수, 제조업이 30여%, 서어비스업부문이 20여%, 정보부들이 40% 정도를 나타낼 것이다.

1) 이 그림은 姜雯錫, “情報化에 따른 産業分類方式과 雇傭構造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論文, 1986, p. 52에서 발췌한 것임.

2) 고용구조를 1·2·3차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情報社會진전에 따른 影響을 반영하기 위해 農業部門, 工業部門, 서어비스業部門, 情報部門의 4부분으로 구분한 OECD분류방식이 보다 의미있다. OECD, ICCP6, *Information Activitie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Vol. 1, (Paris), 1981, pp. 21-70.

情報化의 진전에 따라 우리의 産業構造 내지 雇傭構造가 情報部門을 고도화하는 方向으로 나아간다면, 情報部門에 대한 發展戰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情報部門의 發展은 農業, 製造業, 서어비스業을 능률화하고 그 부가가치를 고도화하는 努力에서 나타나기 때문에³⁾, 情報部門이 이같이 타부문에 연계되어 발전한다면 産業戰略의 입장에서 製造業部門 중심의 情報化인지, 또는 서어비스業部門 중심의 情報化인지를 決定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經驗的 敎訓은 後述하겠지만 美國을 비롯한 西歐에서는 서어비스業 중심의 情報部門發展을 기함으로써 그 결과 製造業의 空洞化와 國際競爭力 弱화 및 그에 따른 貿易赤字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日本의 경우는 製造業 중심의 情報技術發展으로 工產品의 國際競爭力 強化와 國際收支 黑字 현상을 보여오고 있다. 이는 産業發展戰略의 설정에 있어서 情報産業을 生産自動化를 통해 제조업과 결합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産業組織의 소프트化 현상을 보면 大量生産體制로부터 탈피하여 製品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의 단축을 위해 나타나는 多品種少量生産體制에로의 전환과 大企業·中小企業의 森林化 및 그로 인한 콘테스터블 마켓트(contestable market)의 출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종래 산업사회에서의 경제의 주역이던 鐵鋼·石油化學등은 設備投資가 裝置産業的인(product-specific) 것이고 따라서 매몰비용(sunk cost) 부분이 상당히 컸다. 여기에는 規模의 經濟가 存在하여 이것이 進入장벽을 형성하고 결국 分業體制에 의한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垂直的 系列化가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소비자의 개성화가 나타나 製品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의 단축이 요구되고 따라서 FMS, 설계자동화에 의한 多品種少量生産體制로의 生産組織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래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垂直的 系列化를 지탱해온 分業體制, 規模의 經濟性은 와해되어 가고 있다. 또한 製品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이 짧아지면서 고도의 지식·

3) 이같은 사실은 美國의 고용구조 변화추이에서 이론적으로 정보부문이 전체고용의 50%를 넘어갈 수 없음을 밝힌 Jonscher의 연구에서 알 수 있다.

C. Jonscher, "Information Resources and Economic, Productivity," *Information Economics & Policy*, 1983, pp. 13-15.

技術競爭으로 콘테스터블 마켓트(contestable market)가 나타나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구별없이 경우에 따라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이 大企業의 製品開發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 생겨나 獨占속의 競爭은 더욱 더 치열해져 가고 있다. 결국 정보화가 진전되면 산업조직은 그 임팩트를 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의 資源이나 戰略에 依存하여 마치 森林과 같이 크고 작은 나무들이 공존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분업의 의미에 있어서도 이제는 部品과 組立加工이라는 技能위주의 분업에서 탈피하여 情報의 專門化, 産業의 情報시스템化에 의한 情報위주의 분업으로 變化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더 이상 垂直的 系列化가 아닌 相互補完的 의미의 系列化로 變化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産業組織의 소프트化 과정에서 情報社會의 진전에 따른 創造的 中小企業의 역할증대가 국가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은 戰略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美國의 경우 知識·情報·技術을 고도로 개발·이용하는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이 失業問題의 緩和, 産業發展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高度産業社會의 형성에 努力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競爭力提高와 부가가치와 고도화를 위해 創造的 中小企業의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물론 創造的 중소기업이 技術開發力을 갖추고 이에 따른 콘테스터블 마켓트(contestable market)의 형성이 우리나라의 狀況에서 곧 이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소비자의 상당한 所得과 餘暇時間의 確保, 새로운 商品과 서어비스에 대한 熱望,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 努力과 消費者欲求의 創出能力 배양 및 사회진반의 革新的 분위기 형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II. 經濟소프트화에 따른 産業環境變化

情報化의 임팩트로 경제가 소프트화해가면서 國內外的인 産業環境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情報化의 임팩트에 따른 變化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因果의 連鎖로 이루어져 있어 구별이 부자연스런 점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産業政策方向의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分類하

α 考察하기로 한다.

1. 埋沒費用(Sunk Cost)의 회피

情報社會로 나아가면서 산업구조는 附加價値가 높은 方向으로 變化하게 되므로 先進國은 情報·知識의 産業을 特化하고 開途國에서는 製造業을 特化하여 情報과 工產品間에 國際分業이 이루어짐은 前述한 바와 같다. 先進國은 高度의 競爭體制를 갖추어 나가고 産業構造를 高附加價値化하는 과정에서 情報· 지식에 대한 依存度를 높이며 또한 새로운 市場形成에 努力함으로써 매몰비용(sunk cost)이 높은 裝置産業과 自動車, 造船, 鐵鋼, 石油化學에 대하여 投資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 커다란 매몰비용(sunk cost)을 지닌 産業은 대개 그 산업의 기반이 되는 社會資本自體도 대부분 轉用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固定設備을 産業間이나 用途間에 轉用할 수 있는 모빌리티(mobility)가 적은 産業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낮은 附加價値를 부여하게 되어 이에 대한 投資보다는 오히려 컴퓨터, 通信등 매몰비용(sunk cost)이 적고 小規模의 分散型 技術革新이 계속될 수 있는 情報機器分野에 注力하기 마련이다. 결국 선진국들의 고도정보화로 소위 콘테스터블 마켓트(contestable market)가 생성되어 기술집약의 中小企業들이 고도의 技術開發力을 기반으로 venture capital化하기 때문에 매몰비용(sunk cost)이 큰 部門의 投資에 空洞化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韓國은 과연 매몰비용(sunk cost)이 높은 部門을 한정된 선까지만 발전시키고 오히려 他分野에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 先進國이 포기하는 매몰비용(sunk cost)이 높은 部門을 계속적으로 증심발전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엔高現象

經濟分野의 情報化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는 정보부문, 서어비스부문이 고도화되는 方向으로 變化하는데 이때 정보부문은 타분야와 연계되어 발전하므로 情報·技術을 어느 분야와 연계시키느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에서 美國을 비롯한 西歐와 日本사이에 차이를 보임으로써 엔貨의 強勢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美國 등 西歐에서는 市場機能에 따른 經濟政策과 産業의 國際分業系列化 過程에서 3차산업인 서어비

스부문 중심의 情報技術의 利用을 기함으로써 製造業分野의 空洞化現象이 나타나고 있고, 더우기 그들의 유일한 發展戰略인 技術開發조차도 工產品中心에서 벗어나 生命・國防・에너지 등의 분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工產品分野의 國際競爭力은 下落하여 전반적으로 國際收支 赤字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製品生産보다 「財 tech」, 서어비스分野에 投資하는 것이 市場經濟原理에 의해 높은 附加價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工產品生産에 대한 生産性 提高投資에 집중했을 때 부가가치면에서 經濟的 妥當性이 낮을 경우에는 投資를 회피하고 그에 따라 國際競爭力의 下落은 가속화되어 결국 산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大單位 施設投資가 必要없는 技術集約의 中小 벤처(venture) 企業의 발전에 의해 産業發展과 雇傭擴大의 可能性을 타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日本에서는 情報技術을 工產品生産에 연계시켜 生産自動化의 努力에 집중한 결과 고도의 생산기술과 市場戰略으로써 中高級工產品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였고 따라서 높은 附加價値를 향유하게 되었다. 日本이 이같이 거의 全商品에서 높은 品質과 낮은 원가로 中價格帶와 高價格帶 市場의 대부분을 점유하게 된 결과 對西歐 貿易에서 엄청난 黑字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러한 國際收支 不均衡에 대한 반사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恩高現象이다.

이에 韓國은 그간 低價格帶의 시장에서 占有를 증대하여 왔으나 恩高로 인한 일본의 원가상승으로 日本商品이 高價格帶市場으로 격상함에 따라 中間價格帶市場에서의 空洞化 현상이 생겨 우리로서는 좋은 공략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韓國製品이 日本의 水準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본이 점유하던 中間價格帶로 격상하게 된다면 西歐와 아시아 일본국가와의 競爭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製品・디자인・性能・品質 및 서어비스면에서 급격한 향상을 이룩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恩高의 영향으로 日本은 中間財市場에서 國際競爭力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中間財市場과 中間財生産工場을 吸收・誘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中間財生産部門을 유치하여 情報通信技術을 이용한 生産自動化, 産業情報化를 이룩해 나간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

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3. 先進國의 自國市場保護와 市場開放壓力

西歐先進國은 서서비스부문 중심의 정보산업발전을 추진해온 결과 工產品에서의 國際競爭力이 弱화되고 이에 따라 莫大한 國際收支 赤字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失業問題의 惡化, 주요산업인 3차산업의 低賃金化 등으로 國民所得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先進國은 工產品生産에 의해 國際競爭力을 회복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美國은 많은 기술중심의 企業이 생성함으로써 技術開發·雇傭擴大를 꾀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업도 既存 工產品製造業이 어느정도 유지되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先進國들은 國內市場을 보호하면서 國內産業의 競爭力提高를 유도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情報化社會가 진전되면서 더욱 더 심화될 展望이다.

技術과 資本·市場情報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國際收支 및 非雇傭과 關聯된 사회적 반발로 自國의 生産體制를 갖추려는 努力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自國市場의 保護現象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勞組活動의 둔화로 생산의 자동화가 가속화되어 自國市場중심의 大企業, 中小企業이 相互補完的 關係를 定立함으로써 엄청난 競爭力向上을 이룰 수 있는 潜在力이 있다. 이러한 競爭力向上의 可能性은 工產品 關聯技術의 開發推移에 의해 추측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선진국의 기술개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⁴⁾, ① POS와 네트워크(Network)화⁵⁾ 의한 市場情報의 즉시 수집분석과 製品開發, 생산에로의 자동연결, ② CAD 등 製品開發시에 수많은 代案들에 대한 비교평가가 순간적으로 가능한면, ③ FMS 등 생산시에 다양한 製品別로 동시에 자동생산할 수 있는 生産 시스템, ④ OA화 등으로 管理面에서 상호연결시켜 일부 意思決定까지 自動化하는 추이, ⑤ 高度의 集積回路(16MD RAM)의 개발이용과 人工知能(AI)의 利用擴大에 따라 大容量의 컴퓨터로 生産自動化, 事務自動化, 市場情報의 자동연결 및 製品開發과의 연결등을 可能하게 하는 컨트롤 소프트웨어(Control S/W)의 高度化 등을 들 수 있다. 선진국이 國際收支의 壓迫 및

4) Tom Forester,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The MIT Press, 1985), pp. 571-576.

非雇傭의 문제해결을 위해 市場經濟中心의 經濟政策에서 產業政策으로 전환하여 製造業部門에 대한 租稅支援, 市場保護, 技術開發 促進策 등으로 自體生産體制를 確保하고 위의 기술개발의 狀況이 이에 가세한다면 그야말로 國際競爭力에서 가장 유리한 狀況으로도 유도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이에 關聯하여 종래 서어비스業, 情報産業分野를 중심으로 국제분업상의 지위를 누려오던 선진국들이 開途國에 대해서도 정보, 서어비스부문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살펴본다. 情報社會가 진전됨에 따라 선진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서어비스업부문을 중심으로 開途國에서는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南北關係가 정립되어 왔고, 따라서 工產品과 情報·知識間의 比較價格決定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工產品과 情報·知識間의 相對價格이 先進國內 또는 先進國間에서 情報·知識 優位로 安定的으로 형성될 때, 특히 저렴한 人件費中心의 競爭力을 기반으로 하는 開途國은 이러한 比較優位를 인정하기 어려워 先進國의 情報·서어비스分野의 市場開放要求는 情報化社會의 진전과 더불어 국제시장에서의 개도국입장을 더욱 불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 圓高現象

달러通貨圈에 속하는 韓國은 美國의 壓力에 의해 圓화절상을 해야 할 입장까지 처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3년 이내에 1\$當 600원선까지 切上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圓高現象은 圓高로 인한 中間價格帶市場의 進出機會로 輸出景氣가 호전되고 對美貿易에서 계속적으로 黑字를 이룬데 기인한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圓貨切上에 의해 모처럼의 수출 호황이 둔화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圓貨로 인해 예상되는 影響을 보면 原資材, 中間財, 資本財등의 輸入價 引下效果보다는 실질적 原價上昇으로 인한 輸出價 引上效果가 더욱 크다. 이 경우 우리가 對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原價節減이나 國內市場擴大 商品의 高價格化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 조정이 어렵고 여건상 많은 障礙가 따른다. 즉, 수출가격의 인상, 국내 인플레이션의 위험, 國內市場擴大의 어려움, 생산 자동화 投資의 한계와 高價格化의 어려움 등 때문에 圓高로 인해 오히려 急成長의 둔화 내지 경기침체가 발생할 소지가 많

은 것이다. 특히 이 경우에 원高로 인한 경기침체는 中小企業에서 보다 심각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中小企業은 부가가치가 낮아 원가인상의 彈力性을 적절히 吸收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수출가격인상의 경우에 日本의 엔高로 인한 中間價格帶市場의 空洞化 부분에의 침투로 輸出需要를 확보할 可能性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西歐先進國의 競爭力強化를 유발하게 되므로 역시 한국으로서는 어려운 여건이 될 것이다. 한편 원高로 인한 輸入價格引下로 中間財形成의 어려움과 既存 中小企業의 침체위험성이 있다. 오늘날 과거와 같은 購買力 또는 需要誘發에 의한 國產化政策은 무역마찰의 환경에서 國內市場개방의 壓力으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5. 雇傭構造의 急速한 變化와 農村問題

앞에서 OECD의 分類方式에 의한 우리나라의 雇傭構造變化의 推移를 살펴 보았는 바 情報化가 진전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農業比率 下落, 情報·서비스부문比率의 상승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이러한 變化의 사이클은 美國이나 日本등의 선진국에 비해 훨씬 급격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情報化社會로의 변천으로 인한 충격을 緩和하기 위하여, 특히 産業·雇傭構造상의 比率가 급격히 下落하는 農業部門에서의 對應을 위하여 다음의 이슈들은 고려한 産業政策이 要望된다고 하겠다. 즉, i) 農村問題의 解決可能性, ii) 大都市周邊이나 中小都市周邊의 工業化와 關聯都市의 서비스화, iii) 農工團地에 의한 農村의 工業化 可能性, iv) 서울中心으로부터 地方分散에의 可能性 등이 그것이다.

○ 처럼 農業部門의 比率가 계속적으로 下落하고 相對的 優位가 낮을 수 밖에 없는 狀況에서 農村問題의 解決方向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日本에서 政策的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위 1.5차산업의 概念을 도입할 必要가 있다. 농업의 需要豫測, 市場情報獲得, 農作物生産, 流通에 걸친 전과정에서 정보부문과 연계를 맺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收益性, 生産性을 提高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것이 1.5차산업화의 의미이다. 既存의 농업에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서비스화, 情報化함으로써 농업의 소프트화에 따라 農業의 工業化, 農業의 서비스産業化 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Ⅲ. 韓國의 산업전략

情報化의 임팩트에 따른 산업환경의變化가 위와 같을 때 우리의 基本的 産業戰略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이미 産業環境이 구조화되어가고 또한 急變하는 未來狀況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豫測이 可能하다면 高度産業社會의 指針을 위해 정보기술을 어떠한 方向으로 이용 擴大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戰略的 政策이 必要한 것이다.

1. 埋沒費用(Sunk Cost)과 資本投資

情報·知識의 高度利用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이룩한 선진국이 매몰비용(sunk cost)이 큰 부문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既存의 매몰비용(sunk cost)이 큰 부문의 발전을 어느 한도까지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우리의 選擇과 병행하여 선진국들이 이 분야를 縮少시켜 나갈으로써 과연 우리가 經濟大國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과 산업의 전환이 바람직하더라도 變化하는 과정에서 既産業에서의 반발이 선진국의 政策決定에 여하한 影響을 미치느냐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美國의 경우 산업구조의 變化過程에서 제조업에 대한 投資를 회피하고 제 3차 산업중심으로 정보산업발전을 도모할 때 國際競爭力의 취약과 심각한 國際收支 惡化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케 하였다. 또 日本은 70년대에 電子, 通信등 매몰비용(sunk cost)이 작은 부문을 特化함으로써 매몰비용(sunk cost)이 높은 부문의 불황을 克服하여 國際競爭力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성장을 하고 있으나 恩高의 影響과 開途國의 장치 산업분야에서의 競爭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매몰비용(sunk cost)이 비교적 큰 분야의 産業에서부터 점차 競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産業政策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부가가치는 낮지만 競爭力을 유지할 수 있는 매몰비용(sunk cost)이 큰 산업에 대한 投資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中興을 비롯한 後發工業國 또한 이러한 분야에 대한 競爭體制를 갖추게 됨으로서 우리는 장치 勞動集約的 産業과 매몰비용(sunk cost)이 큰 산업으로

근더 이탈해야 하는 결과를 맞을 것이다.

2. 中間財產業의 吸收

우리의 産業體制가 中間財의 輸入에 依存하여 加工組立生産爲主로 되어 있어 産業발전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이제 이 高로 인해 日本의 中間財生産에 競爭力弱화가 나타나고 있고, 美國을 비롯한 西歐에서 製造業部門의 競爭力強化를 위한 産業구조조정의 努力이 단시일내에 해결될 것이 아니라면 여타의 競爭國이 吸收體制를 갖추기 전에 日本의 中間財生産 空洞化의 部分을 우리가 吸收하여 이 부문에 대한 生産 自動化, 情報通信의 이용으로 高度化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西歐 先進國의 높아진 自國市場保護障壁의 打破에 必要한 國際競爭力를 갖추기 위해서도 元高로 인한 中間財產業의 誘到利點이 감소되기 이전에 日本의 中間財產業을 신속히 吸收·誘致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러한 産業誘致에는 그동안 對西歐, 對美 中間財輸出市場을 대부분 유지해온 日本으로부터 커다란 輸出市場을 獲得하게 된다는 戰略的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3. 生産自動化와 情報通信技術의 活用

서서비스業中心의 情報化과정에서 製造業의 空洞化가 초래되어 國際競爭力의 弱화 및 國際收支의 惡化를 經驗한 美國이 보여준 敎訓을 거울삼아 生産技術·製品技術의 活用을 통한 生産自動化의 方向으로 나아가는 것 즉, 제조業과 정보산업의 결합을 통해 情報·知識을 이용할 것이 政策的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情報通信産業政策이 제조業부문에의 보조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情報·通信의 서서비스도 製造業에 대한 直接補助體制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日本의 元高로 인한 中間價格帶市場의 空洞化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도 우리의 産業이 低價格帶市場에서부터 中間價格帶市場으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情報通信技術에 의한 제조業의 정보화·서서비스화를 이루는 것이 더욱 必要하다. 더구나 美國을 비롯한 서구선진국이 언제라도 제조業부문에 대한 高度의 生産體制를 갖출 可能性이 存在하고 莫大한 國際競爭力 提高의 可能性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戰略의 必要性은 더

욱 절실하다.

4. 國內市場의 擴大

國內市場을 擴大해야 할 必要性은 여러가지 면에서 제기된다. 우선 對美貿易의 黑字로 나타난 元貨切上의 壓力으로, 우리와 같은 輸出中心의 產業體制에서 元貨切上時의 충격을 緩和하기 위해 國內시장의 擴大가 必要하다. 또 이때 元高現象을 緩和하기 위해 수출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調整으로 일한 輸出減少를 國內경기 活性化를 통해 補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國內시장 擴大가 必要하다.

한편 前衛한 바와같이 先進國이 產業政策으로 전환할 可能性이 存在하고 그러한 政策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現시점에서 先進國의 自國市場保護의 장벽이 더욱 더 두터워질 것에 대비하여 內需의 確保를 위한 國內시장 확대가 요구된다. 各國의 경향이 생산자동화 설비를 갖추에 따라 市場과 情報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생산체제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우리도 生産自動化的 必要性이 높은 만큼 國內시장을 擴大하여 이에 對應해야 한다.

이러한 國內시장의 擴大問題에서 國內의 어느 市場을 擴大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產業構造面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方向의 구조로 이끌 것인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國內시장의 擴大에 있어 製造業에 대한 情報通信技術의 補助體制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 電子·機械·情報通信分野의 國內시장 개발이 우선적으로 必要하다. 이 때 주의를 要하는 것은 電子나 機械部門에서는 國內供給이 海外市場의 需要에 비추어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國內시장의 擴大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電子·機械産業에 대한 政策에서 고도로 자동화된 설비투자를 하여 施設投資와 市場擴大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5. 農業의 工業化

情報化에 따른 雇傭構造의 變化로 農村의 所得增大를 통한 農村問題의 해결 可能性에 대한 戰略的 政策이 必要하다. 農村의 所得增大方案을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에서는 流通의 情報化와 農工團地 助成을 통해 雇傭 擴大 및 그 地域 서서비스産業의 發展을 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우선 流

通의 情報化를 通한 農村所得増大의 可能性은 農作物의 選擇이 市場機能에 依存함으로써 需給調整을 기하자는 목적과 中間商의 過剩利益을 줄이자는 의미가 있다. 그 결과 소비자의 利得은 크게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供給측인 農村側에서는 供給調整機能이 成立되도록 專門雇傭人力의 定着面에서 製造業과 서어비스業과의 競爭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와 또 美國등의 市場開放壓力으로부터 農村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農工團地에 의한 農村의 工業化도 定着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우선 資本集約的 産業의 定着問題를 살펴보면 未來의 산업구조가 電子·機械工業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장중심과 기술·정보·專門人力中心으로 이행하면서, 또 品質面에서도 고도의 자동화가 이루어져가면서 이러한 産業이 농공 단지에 定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이러한 分野에서는 中小企業조차도 周邊의 農村人口에 고용기회를 주기 어려우며 결국 전반적인 原價上昇의 壓기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로 그러면 勞動集約的 産業을 農工團地에 定着시킬 수 있는냐하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수년간 圓高의 影響으로 勞動集約的이고 附加價値가 낮은 산업에 대한 피해가 제일 먼저 대두된다는 점이 문제된다. 이에 따라 政府의 인센티브에 의해 定着한 후 農村人口를 고용한 農工團地의 製造業者들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어 결국 産業구조를 高附加價値化하여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나 이러한 高度의 生産自動化過程에서 農村人口를 吸收하는 것은 위의 資本集約的 産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附加價値가 낮은 부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中共등의 低人件費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 의해 市場을 占有당함으로써 결국 産業의 拋棄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 筆者의 本心이나, 단일 현실화한다면 1차산업을 2차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大都市中心의 農工團地에 人力을 吸收당하고 農村은 그나마의 마지막 人力까지 잃어 地域社會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결과가 올 것이다. 또한 大都市의 貧富差의 문제와 人口集中에 의한 都市問題는 더욱 擴大되어 심각한 政治·社會問題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러한 現實에서 고려될 수 있는 解決方案은 農工團地를 그 지역의 特色

을 살릴 수 있는 勞動集約의 小規模産業(日本에서는 이를 地場産業이라 함)으로 유지하여 國內시장을 擴大해가고 日本의 地場産業 拋棄過程에서 이를 吸收해가는 것이다. 이는 정보사회로의 진전과정에서 그나마 勞動集約의 産業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나 궁극적으로는 後進國과의 競争에서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IV. 結 語

農業이나 製造業은 情報化·서어비스화를 통해 附加價値를 고도로 높임으로 특히 農業은 遺傳工學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國內定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즉, 情報部門이 高度로 발전한다고 해도 高度産業社會의 追求를 위해서는 製造業의 소프트化 내지 情報化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製造業의 生産自動化 기반에서 고용을 吸收하여 「産業의 空洞化」를 피해야 하는 것이 美國의 經驗的 敎訓으로 부터 당연히 요구된다.

각국 우리가 追求할 情報社會란 서어비스업장의 情報社會가 아니라 製造業이 高度情報技術을 이용하여 高度産業社會를 追求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情報社會인 것이다.

그러나 雇傭政策面에서는 農業과 製造業分野의 情報化로써 대부분의 고용기회를 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生産業務自動化에 따른 失業의 위험이 수반된다. 그에 따라 정보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農業·製造分野의 情報化·서어비스화를 통한 情報部門과 서어비스部門의 고용기회 擴大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人力政策面에서 미래의 고용구조에 彈力的으로 대처하기 위한 情報技術 利用側面的 敎育訓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變化는 불가피하며 그 과정에서 經濟環境의 變化에 대한 豫見과 미리 對應하는 정도에 따라 社會問題의 縮少와 經濟目標의 달성이 可能하다. 특히 適應의 場을 國內市場擴大를 통해 마련한다면 持續적으로 國際競争力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強調하고 싶은 것은 情報社會에 대처하기 위해 社會全般的인 創造的 環境의 造成이 必要하다는 점이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情報社會가 진전되면서 消費者의 個性化가 뚜렷해지고 그에 따라 製造의 라이프 사

사이클(life-cycle)이 짧아지면서 고도의 정보·기술·지식의 경쟁력을 갖춘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이 나타나며 市場形態도 콘테스터블 마켓트(contestable market)의 形態를 띠어 간다. 따라서 產業의 發展은 1차→2차→3·4차산업의 單線的 進化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1차산업과 3·4차산업 혹은 2차산업과 3·4차산업이 交互作用을 일으키며 이에 따라 2.5차 산업 혹은 1.5차산업의 形態가 형성되기도 하는 螺旋的 進化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複雜한 經濟 環境에 대처하는 길은 사회전반의 革新的 분위기 形成과 多數의 創造的 企業의 出現을 助張하는 것이다.